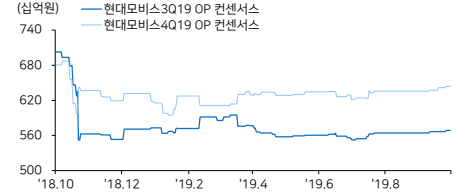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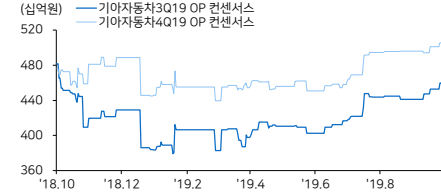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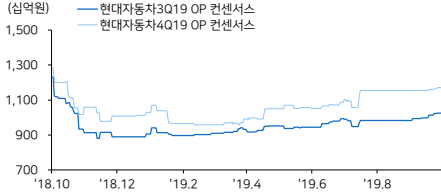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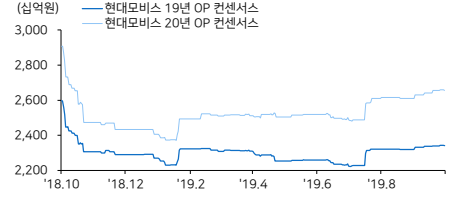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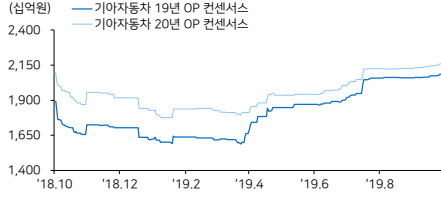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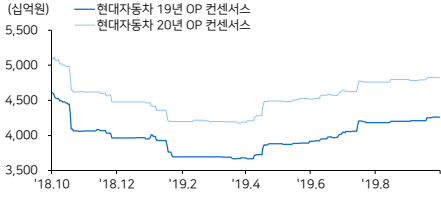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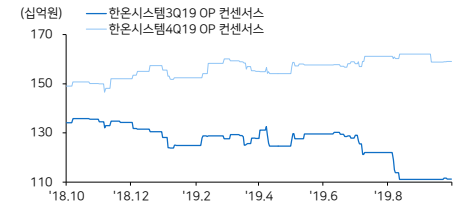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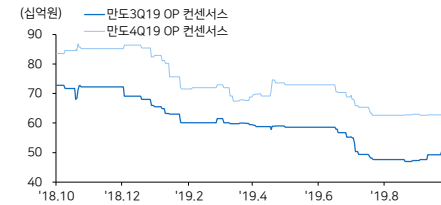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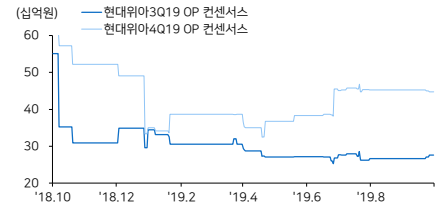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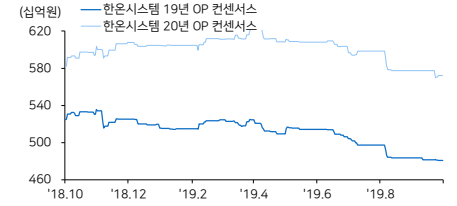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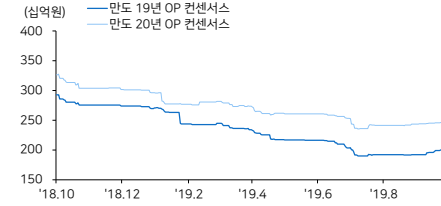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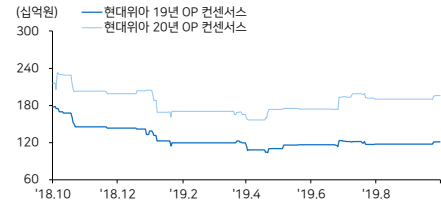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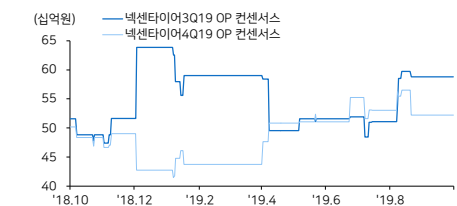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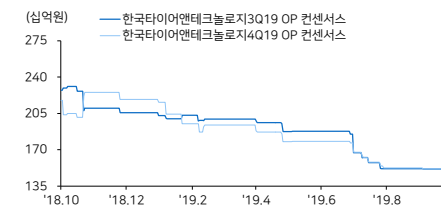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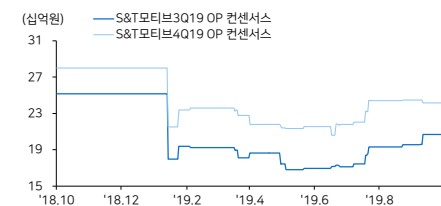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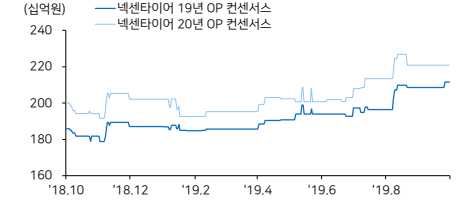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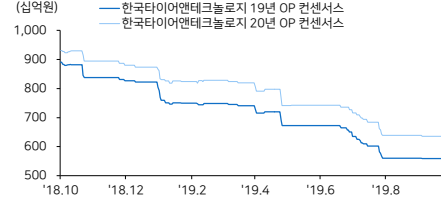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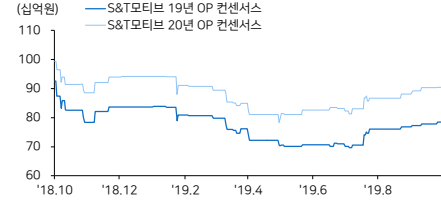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상표등록으로 살펴본 제네시스 풀 라인업은? (이뉴스투데이)

제네시스가 자사 최초의 SUV GV80 출격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제네시스가 선보일 확장된 라인업을 살펴봄. 특히 제네시스는 문자와 숫자를 결합한 '알파뉴메릭' 방식으로 차명을 사용하기에 브랜드 정체성과 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bit.ly/2q58lcF>

현대차, 中 전기차 생산 준비 완성...콘티넨탈과 '구동시스템' 공급 계약 (매일뉴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솔루션 업체인 네트라다인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 다만 현대차 미국법인 측은 구체적인 투자규모나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음. <https://bit.ly/2otQZwF>

현대차 파키스탄 조립공장 내년 1월 가동...현지 시장 공략 가속화 (이투데이)

현대자동차가 조립공장 가동과 판매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적인 파키스탄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선. 파키스탄 일간 Dawn에 따르면 현대차의 파키스탄 합작법인 현대나시트(HNMPIL)는 내년 1월부터 포터 H100 트럭의 현지 조립을 시작. <https://bit.ly/2pdygy3>

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 결국 '결렬'...노조 "교섭 중단하겠다" (전자신문)

한국지엠 노사가 파업을 잠시 멈추고 임금협상 단계교섭을 나섰지만 결국 결렬. 노조는 앞으로 사측과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지난 7월 9일부터 3개월에 걸친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 단계교섭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됨. <https://bit.ly/316egL2>

기아차, 인도에 'BEAT360 엘리' 개관...셀토스, 5만 대 예약 불티 (부산일보)

기아차가 인도 델리에 복합 브랜드 체점관 'BEAT360 엘리'를 열고 현지 시장을 공략. 기아차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 판매한 첫 모델인 셀토스가 호응을 받은 덕에 순항 중. 7월에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예약 대수가 5만 대를 넘음. <https://bit.ly/2OCeN4W>

현대차, 美 'ADAS' 솔루션 업체 '네트라다인'에 전략적 투자 (전자신문)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솔루션 업체인 네트라다인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 다만 현대차 미국법인 측은 구체적인 투자규모나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음. <https://bit.ly/2otQZwF>

中 수령에 빠진 현대·기아차...5년 연속 판매목표 미달 가능성 커져 (조선비즈)

현대·기아차가 올해도 연간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올해여 글로벌 시장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하며 연초에 제시한 판매 목표를 크게 밀리고 있음. <https://bit.ly/33gQzXh>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전기차 시장 진출 포기 (조선일보)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이날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 다이슨은 "개발 전 과정에서 매우 노력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못했다"고 말함. <https://bit.ly/2nALC0h>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